

목장 모임 나눔지

2021년 8월 29일 (8/30~9/4)

삶을 변화시키는 목장 모임



찬양(Worship)	→	환영(Welcome)	→	말씀(Word)	→	사역(Work)
찬송가 복음송	마음 열기	인사와 축복 아이스브레이크	말씀 열기	성경읽기 말씀나누기	결단과 기도	전도와 봉사, 합심기도, 헌금

1 찬양(Worship)

- 찬송가 : 320장(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1장(날 대속하신 예수께)
- 복음송 : 그의 생각, 나의 가는 길

2 환영(Welcome)

- 인사와 축복 :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 아이스브레이크 : 7, 8월의 목장지도자 모임 방학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3 말씀(Word)

- 성경읽기 : 요 1:45-51

지난 주 설교 한 눈에 보기 “나는 제자입니다(나다나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3년을 사역하시기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 12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훈련시켜야 할 텐데, 주님은 세상의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바돌로매라고 불리는 나다나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같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읽으며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45절)라고 소개합니다. 즉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나다나엘이 그 당시 책을 읽고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46절)하고 편견에 갇혀 대답을 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셔야 하고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문화, 교회의 중심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와서 보라’, 확신에 찬 음성과 믿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편견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분인지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47절)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봐 주실 때, 비로소 그 눈이 열리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49절)

••• 핵심메시지

우리의 지식과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고와 편견의 틀을 깨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함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나다나엘은 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연구하고 고민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마7:7, 요1:48, 딤후 3:16)
 - ▶ 마태복음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 요 1: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 ▶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편견이 자리잡고 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요1:46, 롬10:17)
 - ▶ 요1: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 ▶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 세상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마음의 자리잡고 있는 내면을 보십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요1:47, 요1:49, 요1:51)
 - ▶ 요1: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 ▶ 요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 ▶ 요1: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4 사역(Work)

- ① 개인기도 및 합심기도: 오늘 나는 말씀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 ② 전도와 중보기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공동기도제목과 가지고 기도합니다.
- ③ 헌금: 정성껏 준비해 오신 목장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 ④ 광고 및 주기도: 교회 및 목장 소식과 전달 사항을 나누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⑤ 9월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8)